

에드먼튼 소망교회 Edmonton Hope CRC

성경의 맥을 잡아라

2020 09 15



- 양미자 권사

책을 읽기에 앞서 책의 제목은 나에게 그 책에 대한 이미지를 그리게 한다. 이 책의 제목인 "성경의 맥을 잡아라"는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흐름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는 기대감과 함께 나에게 여러 가지를 이미지화 시켜주었다. 이 책은 신·구약의 뼈대를 중심으로 40개(Day1~Day40)의 소주제별로 구성되었기에 우리 독서모임에서는 서로의 여건을 고려하여 1일 Day1 분량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읽기로 결정하였다.

나는 거의 매일 새벽 5시의 자명종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약 30분간 주님께서 주신 맑은 자연의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여는 기도와 함께 우리집 주변을 산책하고 6시에 소망교회 새벽기도회 참석한다. 그리고 가족의 아침식사 후 설거지를 마치고 이 책을 읽는 것이 그 다음 순서인데 이 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늘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와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의 이른 시간의 단추를 끼워가게 하시고 어느 날은 성령님의 속삭임 속에 저에게 금식을 권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입맛에 맞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또한 식생활의 즐거움인데 금식을 해야 한다는 것이 맘에 부담이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음식에 대한 절제와 순종하는 의지력을 붙잡아 주셔서 그 동안 때때로 경험했던 3일간의 금식에 단기목표를 세우고 기왕 하는 금식 요번에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7일간의 금식을 해낼 수 있기를 장기목표로 세워서 금식을 시작했다. 예전에 내가 했던 3일간의 금식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2일째가 힘들었는데 요번에 2일째의 금식은 아무런 불편함 없이 지나갔다.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새벽에 두통과 뱃속의 불편함으로

잠에서 깨어 화장실로 가 여러 번의 구토를 했다. 그 후 2시간 정도 잠을 자고 일어나니 아주 가벼운 몸과 상쾌한 기분으로 몸의 상태는 호전되었고 은혜가 충만한 주일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나는 이날 3일간의 단기목표를 달성한 기쁨을 누렸고, 이후 그 기쁨과 함께 계속하여 7일간의 장기목표까지도 달성할 수 있었다..

금식하던 기간과 금식을 마치고 난 후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의 연속이었는데 내가 4년째 먹고 있는 갑상선기능저하증의 약의 도수가 단 한번도 내려간 적이 없이 조금씩 올라갔는데 금식 중에 토를 통해 이 약의 도수를 낮추게 하시고, 큰딸 하은이의 University of Alberta 합격소식, 약 10년 전에 내 영어사전 책갈피에 꽂혀 있어서 사용했던 \$40의 행방과 함께 그 돈의 주인을 알게 하셔서 그 돈의 주인에게 \$40과 함께 이자를 계산하여 음식을 사서 전달하게 하셨다(이 외에도 받은 은혜가 더 있으나 지면관계상 생략한다). 이 책의 후반 부에 금식에 대한 성경말씀(P. 371,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와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사 58:6~8), P. 442,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마9:14)) 이 언급되는데 금식기도의 효력은 참으로 대단하다. 이 독서모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책의 제목처럼 성경의 맥을 잡게 하심은 물론 덤으로 금식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다. 나에게 이런 은혜의 터를 제공한 독서모임의 후원자 교회 재단에 무한한 감사를 표한다.

- 염혜지

성경의 맥을 잡아라를 읽게된 동기는 같이 큐티모임을 하는 이은주 집사님을 통해 하게 됐습니다. 꽤 책이 두꺼워 망설였지만, 늘 마음 한구석엔 언젠가는 성경을 통독하고 싶다는 갈구가 있었기에 여럿이 독서모임을 할때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참여하게되었습니다.

전 사실 문봉주 저자님이 어떤분이신지몰랐는데 책을 통해서 느낀 것은 이분은 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어 아버지를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입니다.

성경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 해주셔서 읽기가 편했고 이해하기가 좋았습니다. 특히 그 당시의 문화적 지리적 입지를 바탕으로 읽어서 성경속에 인물들의 성격 왜 이런결정을 내렸을까 하는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되었습니다. 특히 전 단일 왕국 시대 부분을 읽으면서 각 인물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나에 따라 한 나라와 왕의 운명이 바뀌는 것을 읽는 부분에서는 마치 역사드라마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성경을 읽을때 특히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전쟁의 신처럼 묘사했던 걸로 기억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가는가에 상관없는 믿음을 기복신앙을 묘사함을 깨달았고 이는 몇몇 왕들의 이야기임을 깨달았고 오해를 풀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신약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이 왜 팔레스타인에 오셨을까에 대한 이유를 시작으로 당시의 로마배경, 예수 그리스도 시대, 성령 시대로 나누어진 부분에서는 새롭게 또 깨달은 점은 성령시대를 살고 있는 나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 주었습니다. 성경의 은사에 관한 부분도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어떤 성도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모순된 성도의 자세등에서도 큰 공감하며 읽고 제 삶의 방향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이책은 아버지께서 저에게 길잡이로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마치 어릴때 학교 공부할때 전과처럼 공부내용이 잘 이해가 안될때 보는 풀이서, 성경보다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옆에 두고 계속 볼수 있는 참고서같은 것 입니다. 저 또한 대부분의 사람처럼 한번 읽었던 책은 다시 펴보지 않는데 이책은 성경통독 가능성에 힘을 불어주었고 늘 옆에 끼고 있을것 같습니다.

성경의 맥 덕분에 아버지의 뜻과 사랑을 또 한번 더 느끼게 되었고 이를 발판으로 내 육은 비우고 성령으로 채우심을 매일 매일 숨쉬듯이 게을리 함이 없기를 아버지께 구원합니다. 정말 제가 사랑하고 아버지를 알고자 하는 지인들에게 선물 하고 싶을 만큼의 귀한 책을 독서클럽을 통해 권유해주신 이은주 집사님께 감사드리고 같이 독서모임에 참여한 성도님들 주석한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아멘

- 최고은

나의 두 번째 독서토론 주제의 책은 문봉주 장로님(지금은 목사님이 되심)이 쓰신 책으로, 팀 켈러의 <하나님을 말하다>에 이어, 본질적으로 접근 가능한 말씀의 맥을 짚어 볼 수 있는 '두꺼운' 책이었다. 다행히 'DAY40'로 나뉘어져 있어서 차근차근 읽고 이해해 나가기에 어렵지 않았다. 다 년간의 성경말씀을 학습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만 톡톡 흔들어버리면 잊어버리는 어리석고 연약한 나에게성경의 뼈대를 잡아주는 좋은 학습서와도 같았다. 특히 많은 비유와 묵시, 당시의 배경의 풀이가 없이는 난해한 사건들에 대해 풀어주시는 것들이 알기 쉬웠고,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다.

구약성경의 큰 뼈대는 10개의 시대로 구분되었다. 창조시대(창세기1-11장), 족장시대(창세기12-50장, 욕기), 출애굽과 광야시대(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정복시대(여호수아), 사사시대(사사기,룻기), 단일왕국시대(사무엘상하, 열왕기상1-11장, 역대상,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분열왕국시대(열왕기상 12-22장, 열왕기하, 역대하,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포로시대(다니엘, 에스겔), 포로귀환 시대(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침묵시대(예수님 오기전 400년)으로 나뉜다. 이것을 중심으로 하나씩 풀어가는 이야기들이 재미도 있고 새롭기도 했으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하심도 느끼고 감사했다.

구약성경이 마냥 옛날 이야기로 들릴 수 있으나 이 것은 결코 동화같은 옛 이야기가 아니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경륜이 가득하며 현재 여기 나에게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알게 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인도하심은 주권자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긍휼을 깨닫게 해 준다. 끊임없는 그들의 배반과 원망과 가증함 속에도 결코 저주아래만 있게 앉으시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지라도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끊임없이 돌이켜 회개하라는 호소와 찬양케 하심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나타냄 알았다.

항상 성경 앞 뒤에 붙어있는 지도들보다 책에 기억하기 좋게 식빵,포크, 닭다리,뱀에 비유한 지도가 내 맘에 더 잘 들어왔다는 사실이 비참하긴 하지만 참으로 감사했다. 지도를 보면서 그들이 결코 동화 속에서 그리는 그저 나쁜 인간이 아니라 나와 같은 이런 저런 감정과 이성을 가진 인간임을 공감했고, 나라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공감도 했다. 말씀을 읽을 수록 날마다 내가 참 죄인됨을 깨닫게 된다.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의 침묵시대 또한 그저 침묵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의,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인프라를 준비한 기간임을 알게 되었다. 또한 로마를 통하여 더 큰 복음의 전파의 길을 예비하신 것도 감탄할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계획이었다.

악인이라 생각되는 사람들 또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시려 많은 것을 예비하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찬양할 수 밖에 없다. 큰 사랑으로 직접 사람의 몸으로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죄인일 수 밖에 없는 나에게 낮아짐의 모본을 보이시고 천국인의 삶의 자세와 성화의 삶을 가르치신 것은 놀라운 선물이며 은혜이다.

이 책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대한 '맥'이며 '이해'(지식)였지만, 결국 믿음은 살아계신 주권자 주 하나님으로 부터 오며 그 분의 섭리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깨닫고, 경험해야 하는 것이다. 말미에 성령에 대한 가르침과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저자의 많은 경험이 말씀의 이해를 돕는데 많은 실례로 들어서 좋았고 나 또한 같은 부분에서 많은 공감을 했다. 특히 방언부분에서 많은 사모와 고민이 있었는데, 책을 마칠 때에는 방언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많은 것을 깨닫게 해 주셨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아래 있다. 그럼에도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리, 기도자리, 찬양의 자리를 찾아야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구하는 것은 덕을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임을 깨닫는다. 긴장의 끈을 놓지않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한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결실을 맺으며 살기를 소망한다.

- 진현정

주님을 믿게 된 지 20년이 다 되어가지만 부끄럽게도 성경의 흐름을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신약성경을 위주로 말씀을 읽었고, 구약은 재미있는 역사이야기처럼 생각하며 이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듣거나 성경공부를 할 때 예전에 성경을 읽었던 기억을 더듬으며 깊이 이해하지는 못했다. 코로나 이후 신앙생활에 나약해진 자신을 돌아보며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소망했고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기를 원했다.

‘성경의 맥을 잡아라’를 통하여 지도를 배경으로 말씀을 더욱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구약시대의 말씀의 순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시기의 역사적 배경, 신약의 서신의 저자들을 정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어떻게 어떤 순서로 읽어야 할 지 이해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각 권의 중심내용과 핵심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동안 잘 읽어보지 않았던 권이나 깊이 읽지 않았던 권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기회였다. 내가 생각하는 구약의 하나님은 별주시는 무서운 하나님의 이미지 였는데 이사야서를 설명해 놓은 부분을 읽고 성경의 이사야서를 읽은 후 크신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나의 작았던 생각을 바꿀 수 있었다. 나를 지으실 때 부터, 세상을 지으실 때 부터 나를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은 모든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셨고 내가 듣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기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이 책을 통하여 성경의 맥을 잡았으니 이제는 제대로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겠다고다짐한다.

- 김현욱

교회를 처음 다녀본 저에게 이번 독서모임은 큰 감명이었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책을 읽고 말씀을 나누며 느낌을 이야기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무척이나 값진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현실적인 일들로 많이 바빠질 저에게 이번 독서모임은 앞으로의 시간들에 대한 원동력이자 기동일 될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성경의 기본 내용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율법, 십계명을 자세히 알게 되어 참 좋았습니다.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심은 그야말로 ‘사랑’을 강조하신 것인데, 이는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것,,,, 이는 또한 나를 내려놓는 것임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이 저에게는 어렵고 큰 숙제임을 느낍니다. 자아가 강하고 나를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저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또한 정복해야 할 어려운 문제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위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무릎꿇고 예배드리는 것 뿐이라는 것을,,절실히 깨닫습니다.

갑작스레 캐나다에 오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가진 많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어쩌면 저에게는 광야에서의 생활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철저히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갈 수 밖에 없는 환경으로 저를 이끌어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직장 생활의 습관으로 좀 더 나은 느낌을 공유해야 되고 귀감이 될 수 있는 평을 공유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의 깨달음은

“이사야서의 주된 내용중 하나인 죄성을 알려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 찼다. “는 책의 내용은 죄의 굴레속에 속박된 인간의 한계를 아시고 실수해도 관찮으니 대신 진실로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 무지한 자녀를 향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것을 알게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매일 회개하고 말씀을 붙드는 경로를 이탈하지 않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 부여하신 큰 사랑과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조옥형

이번 독서모임은 나에게 크나 큰 도움이 되었고 은혜받는 시간이 되었다. 너무 부끄럽지만 아직 성경 일독을 못해본 나에게 그것에 앞서 가이드 라인이 되어 주는 시간이 된 것 같고, 그냥 혼자 읽으면 알기 어려운 역사적 지식이나 배경까지도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힘든 부분이 있을 때에는 참고서처럼 옆에 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초보자인 나에게는 그런 지침서가 될 수 있는 책인 것 같다.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사랑하는 하나님께 또 한 번 감사를 드리고 모든 영광을 돌리고 싶다.

내가 파악한 성경의 핵심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또는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까지 사랑을 쏟으며,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가 말하고 있는 부분은 내가 느끼기에는 그랬다. 이웃사랑과 자신을 버리기... 이웃 사랑은 사회적으로도 많이 얘기가 되는 부분이고 어느정도 아는 부분인 것 같다.

나에게 어려운 부분은 자신을 부정하기, 자신을 버리기인 것 같다. 나를 주장하는 것을 버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내가 남에게 무시당하고 거절당할 때, 배고프고 궁핍할 때에도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음에...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미처 몰랐던 이 크나큰 진리를 알고 나니.. 얼마나 든든하고 가슴이 벅차오르는지...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던 나의 날들...어찌 살아왔는지.. 이제와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고 이기적이었던 나를 떠올려본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향해 조금씩 나아가게 해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내가 감명받았던 부분,,,예수님이 겔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때 기도로 승리하시며"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는 고백.... 기도로 승리하며 기도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한다.

오늘 하루를 말씀과 기도와 또 이런 독후감 쓰기로 마칠 수 있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 이은주

이 책에서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맥을 잡는 연대기적 접근법이 새로웠고 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지식은 아직 믿음이 아니다. 성경 66권에 쓰여 있는 문장보다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라고 한 저자의 생각에 큰 공감이 갔다.

이 책을 읽는 동안 나에게 큰 관심이 된 부분은 천국과 하나님나라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 인가에 대한 성찰들이었다.

천국은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땅을 지으셨고 이 땅에 에덴동산을 지으셨다. 죄를 짓기 전까지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이 땅의 천국으로 서의 에덴동산을 생각해 보았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났다.

구약과 신약에서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쫓겨 나듯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추방 당한다. 결국 구약성경은 인간의 타락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나라가 사라지고 세상나라가 시작됨에 따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나라를 다시 만들고 회복해 나가시는 이야기이다.

신약성경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빛과 생명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셨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셨다. 예수님을 믿는자들에게 “칭의”의 구원을 주시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성화’의 구원을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이다. 주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나라이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17:20~21)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고 하셨다. 천국은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을 통해 내 안에 느껴지는 것 임을 최초로 선포하신 것이다.

성령님의 임재로 팔복, 여덟가지 삶의 자세를 가지게 되며 그 결과로 축복(천국)을 누릴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큰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것도 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유한한 이 땅에 살면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한번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한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자, 긍휼히 여기는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주님을 볼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신다.

하나님나라를 위해 대가를 치르겠다는 믿음을 갖는 것, 하나님나라를 세우기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을 감수하겠다는 성도는 반드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말씀이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항상 깨어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할 때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순종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질것이다. 그렇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한다.

- 최영민

벌써 가을이 온 듯하다. 새벽예배가 끝나기 무섭게 출근준비를 하면서 허우적 대는 나를 보며 코비드에도, 이른 아침에도 온라인 예배를 드릴수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해 본다.

내 성경 옆에 2달간 함께 있던 ‘성경의 맥을 잡아라’라는 책을 이제 나만의 책꽂이에 꽂아놓을때가 된것 같다.

이 책의 저자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본인의 신앙체험을 말하고 당시의 배경등, 영성탐구 와 지식탐구 라는 것도 곁들여 성경을 보는 눈을 확장 시키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진행시키는 것이 참 흥미로웠다. 성경 속에서 출애굽과 현실에 서있는 내가 출애굽 한 후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야 할지를 알려주고 영적인 부분에서도 쉽게 이해 할 수있도록 이해를 도와서 좋았다.

글을 시작하며 저자는 ‘성경지식은 믿음의 전제가 될수 있지만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성경의 맥을 잡아가는 것을 읽어가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하면서 끊임없이 너무 아프게 한다는 것이 안타까웠고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 사랑을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 다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때 다시한번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줄 주께서 아십니다”한것처럼 내 자신도 그 한사람임을 다시 고백하게 되었다.

아버지 말씀인 성경을 다시한번 묵상하고 싶게 만들어준 고마운책이다.

- 김효진

제가 이 책을 처음 접하게 된 때는 2020년 7월, COVID-19으로 인해 전세계가 혼란을 겪기 시작한지 얼마 안되고 저도 같이 혼란스러워하며, 이러한 시대를 사는것이 스스로 답답함을 느끼고 불안해지던 때였습니다. 모태로부터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말이 많이 부끄러울정도로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고, 마음으로 느끼고 깊이 묵상하는 말씀보다 어렸을때부터 배워온 성경지식들만 많아 머리로 알고 있는 성경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늘 궁금했고, 이번엔 깊숙하게 더 알고 느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의 독서모임의 소식은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단순히 읽어내려가는 책이 아니라 공부하듯이 열심히 읽어야한다는 목사님 말씀에 따라 집중하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의 초반에 성경의 이해를 위해 성경의 구조와 시대의 흐름에 따른 지도의 모습이 있었는데, 현재의 모습도 비슷할까 하는 궁금함에 Google Map 에서 그 지역을 찾아보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지역의 이름이 바뀌어있지만 저자가 간단하게 그리고 설명한 지도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보고 신기하기도 했고, 역시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알게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심과 인간의 타락, 그 이후에 세우시고 통해 일하신 사람들(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예수님의 제자들 등)과 그 배경과 사건들(출애굽, 광야생활, 십계명, 가나안 입성,

망해가는 이스라엘, 예수님의 탄생, 공생애 시작, 제자들과의 만남과 사역,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부활하심의 이후 등등)을 보며 성경 안에서도 시간에 따라 시대는 변해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늘 변함없이 어리석은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 응답하길 원하시는 모습은 한결같다는걸 느꼈습니다. 그 시대를 상상해보며 나를 대입해 보기도 하고 내가 그때에 살고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특히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와 십자가에 죽으실때 또 부활하실때 그 현장에 내가 있었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베드로와 바울 또 다른 제자들처럼 목숨걸고 예수님을 전하고 핍박에도 굴하지 않던 모습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는 내모습과 비교되어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또 반성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죽이고,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큰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 받은 내가 잠깐 머무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라시는 마음을 알게되서 책을 읽으면서도 행복하고 감격스럽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책을 소개해주신 목사님과 함께 나눈 독서모임 멤버들 모두 감사합니다.